

제목: "놀라운 부활의 소식"

말씀: 누가복음 24장 36-53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그냥 소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낙심과 혼동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 1) _____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 2) _____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 3) 11명의 _____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 4)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_____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부활 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 양 다 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 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24장 36-53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24: 36-53 신약 140 페이지 Presider
- 말 씬 "놀라운 부활의 소식"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amazing news of Resurrection Rev. Kim
- 성찬식 다 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 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 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 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새로 태어난 기쁨)

오늘은 부활절이다. 고난 주간을 거쳐서 맞이하는 부활절은 늘 기쁘고 감사하다.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부활절 주일을 휴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부활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들이 이전 보다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긴 겨울을 보내고 부활절 때가 되면 여러 예쁜 꽃들도 피기 시작하고 온도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고 새로운 마음일 것이며 부활절이라고 하니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모르지만 초콜릿에 카드 그리고 휴일이라니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이유를 알고 기뻐할까? 생각해 보면 씁쓸하다.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달력에 빨간색이고 또한 “부활절 일요일”이라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절은 생명이 아닌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도 그렇게 부활 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는 이세상이 너무나 복음에 달혀 있다는 것과 매 해마다 그것이 더 단단해 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답답해진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맥주 한 잔 더 하는 날이 아니고, 고기 구워먹는 날이 아니며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고 답답해 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연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이 부활의 날을 절기 지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고난 주간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사는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4절)라고 성경은 전한다.

생명을 얻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할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세상은 휴일이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며 헌신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4. 4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4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부활주일 예배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예배합니다.

6. 3월의 행사

부활주일 4월 4일(주)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